

# 내년도 살림규모 6377억원

### 남원시 예산 편성 제출 전년대비 622억원 증가 경제활성화 중점 투자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8년도 예산안을 6,377억원으로 확정해 지난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622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일반회계 5,833억원, 특별회계 543억원이다.

428억원, 환경보호분야 32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8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소득 주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노인 일자리사업, 두레사랑방·지역 아동센터·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지원,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30억원, 용성 중로 개설 25억원, 지리산 IC진입도로 개설 20억원, 농로·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비 210억원 등에 중점 투자될 계획이다. 이환주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특산품이 가장 매력있는 관광도시는?

### 순창군 '트래블아이 어워즈'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순창군이 고추장 등 특산품이 가장 매력 있는 관광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문화마케팅연구소가 주관하고 트래블아이가 주최,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2017년 제3회 트래블아이 어워즈' 특산품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순창군은 3년연속 특산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순창군은 고추장 등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전통 기능인들이 중심이 된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조성해 관광자원화 하고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현대인들이 전통장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정류체험관과 유기체험관을 운영해 해마다 1만 5,000여명의 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발효소스도굴, 강천산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발효커피는 관광객에게 토종미생물을 적용한 독특한 지역 커피로 인기를 끌면서 순창 관광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요새는 발효커피를 맛보기 위해 순창을 찾는 관광객도 있을 정도다. 관련해서 지난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수상자지단체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수상식도 진행됐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은 고추장 등 전통장류 부문에서 이미 독보적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이다"면서 "앞으로 발효커피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개발하고 산업화에 매력있는 관광시스템을 만들어 항상 사람이 붐비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최고품질 '춘향골 딸기' 본격 출하

섬진강변의 비옥한 토양과 지리산의 청정지역 요건을 구비한 춘향골 남원에서 소비자 맞춤형 최고품질 딸기가 본격적인 수확 작업에 돌입하였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평야지역의 송동, 금지, 주생과 중산간지역인 산동, 덕과, 이백 등을 중심으로 420여농가 140ha에서 시설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연간 280억원 이상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어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춘향골 딸

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탑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최고품질 과제(딸기)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을 2014년부터 2년동안 추진하였고,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두 번째 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딸기 재배기술을 딸기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ICT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20% 이상 크게 향상시켰다. 농업기술센터 채소기술담당은 앞으로 지속적인 딸기묘 생산시설 공급



과 TOP딸기 생산기술 보급에 힘을 계속 확임을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희망2018나눔캠페인'이 진행되는 가운데 21일 남원시청 시장실에서 1호 기부자 전달식이 진행된 가운데 이환주 시장과 김숙희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찬바람 녹이는 '따뜻한 손길' 귀감

### 남원시 희망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 김숙희씨 500만원 기탁

'희망2018나눔캠페인'이 진행되는 가운데 21일 남원시청 시장실에서 1호 기부자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1호 기부자의 주인공은 김숙희(법무부 법사당 남원지부협의회장)로 지역 내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숙희 회장은 남원 유일의 5년 동안 1억 기부를 하겠다는 '아너소사이터'에 가입을 했으며 꾸준한 봉사활동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또한 법사당 남원지부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비형청소년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장서는 등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도

해오고 있다. 김숙희 회장은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사랑 나눔을 직접 실천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탁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 및 지원할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장은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우리사회에 아직 많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 120만원봉사대 해단식

### 1년간 525세대 혜택 '고객 감동'

남원시는 희망 나눔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오지마을 소외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그늘진 곳까지 세세히 살피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만원봉사대'가 21일 동동동 고산마을을 끝으로 2017년도 활동을 마치고 2018년도를 기약하며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은 120만원봉사대 단원으로 활동해온 19명의 봉사대원과 이영태 시민소통실장이 참석하여 10개월간 60개 마을의 봉사활동을 통해 각자 활동소감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등 자유로운 소통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만원봉사대'는 5개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 매주 화, 목요일 1개 마을씩 1년 60개 마을을 선정, 자체 수리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 가정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문풍지 설치 등 안전점검·보수 등 실시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미용 봉사도 실시했으며, 고장 난 농기계 수리 등 525세대에 2,409건의 고장 및 노후시설을 교체·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고객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영태 시민소통실장은 "찾아가는 현장봉사를 통해 오지마을에 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섬김 행정을 실천해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어려운 이웃 위해 써주세요'

### 순창 구림면 나눔실천 줄이어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어렵게 사는 구림 소외계층을 위해 구림면 주민들과 단체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구림면 연산마을 출신 윤대호(33, 목표경찰서 경사)씨는 구림면에서 어린 자녀들과 어렵게 사는 다자녀 가정과 한 부모가정에 쌀 20kg 7포를 기증했다. 구림면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순남)에서는 22일에 김창 200포기를 담아 30개 마을 경로당에 지원할 예정이다. 구림면 적십자봉사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구림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소외계층 11가구에 반찬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있고, 진도식당, 정자나무가든에서는 연간 2회 고령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갈비탕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구림면사회복지협의회 박순남 회장은 "단체와 주민들이 서로 나서서 소외된 이웃을 돌볼수 있는 동네복지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 전주대, 농생명 전략산업 발전 맞손

순창군과 전주대학교가 농생명 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2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전주대학교와 '농·생명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해 농생명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순창군과 4차산업 혁명시대 농·생명 ICT 분야 연구를 집중 추진하고 있는 전주대가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전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만든 자리다. 실제 순창군은 최근 친환경연구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친환경 농업과 저비용 자체 개발 등 업무에 본격 착수하고 있으며 전주대학교는 ICT기반 농생명 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양 기관은 농생명 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실비와 기술 인력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 교육 및 현장실습에도 상호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이구연 순창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모 생명농업과장 등 군측 관계자와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김진수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담당, 이용노 산학연구기획실장, 이재철 산학연구기획과장, 서정덕 기계시스템공학과교수 등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황숙주 군수는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농업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오늘 순창군과 전주대학교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농업을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드는데 힘을 합해 나가자"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